

30여년 뒤의
아름답음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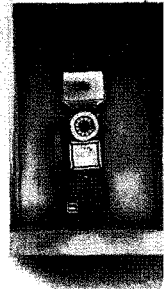
세금고지서를 받아든 준이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2,000평 규모인 땅의 세금으로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했다.

“살다보면 어찌될 줄 모르는 거다. 직장을 그만뒀야 할 사정이 생길 지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망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일 다 막혀 살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법이다. 그럴 때면 시골로 내려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말씀이 땅을 정리하려고 할 때마다 떠올라서 발목을 잡았다. 해마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면서도 끝내 세금만 내면서 사십 살의 나이를 먹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10년 동안 낸 세금만 해도 일 년 동안의 수입과 맞먹을 액수다.

준이는 세금 내는 것을 억울해 하진 않는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던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회에 그만큼의 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등 불평할 일이 없다. 그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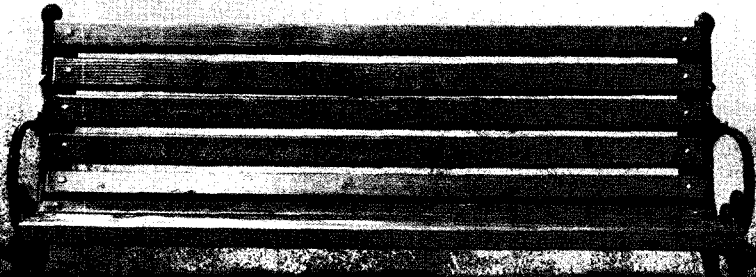
금으로 지금의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유지해나가고 있으니 한편으론 흐뭇한 일이다. 의료와 교육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에 임대주택정책을 통한 값싼 주거와 문화예술 향유까지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니 그만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야 마땅한 일이다.

땅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사과 몇 상자는 가을과 겨울 사이의 기간 동안 식구들의 간식거리로 훌륭하지만 내는 세금에 비하면 수익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그렇다 해도 세금에 대한 불만은 없다. 농부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터이니 더욱 그렇다. 따지고 보면 소득세만 해도 월급의 30%가 넘고 있으나 응당 원천징수가 되어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 그러려니 생각한다. 다만 거둬진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선 문득문득 의문이 들곤 하지만 시민단체에 매달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안도하며 넘어가곤 한다. 그렇지 않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다보면 몸과 마음만 어지럽고 더럽혀질 뿐이어서 이득이 없다고 보아 나름 개인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쓰며 생활해왔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미안하지만 이번에 아예 땅을 자치단체에 내놓아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게 할까? 상속을 받았다 해도 부채지주인 까닭에 양도세가 무거워 팔아보았자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만약을 대비해서 물려준 땅을 팔아 사사로이 쓴다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지금과 같은 복지사회가 유지된다면 굳이 땅을 갖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는 냉혹한 경쟁의 장이었다. 말로는 남을 위하자고 봉사를 하자고 나누는 사회를 만들자고 너나없이 외치곤 했지만 정작 사회제도는 경쟁을 극대화시키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형태였다. 그러니 남을 돕는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패배자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며 고맙게 알라는 식이었다.

노동자끼리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려 대립했으며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차이가 수백 배 나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었다.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수백 배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참 이상한 일이었다. 최고경영자와 신입사원 사이라 해도 임금차이가 10배 이상 될 수 없게 되어있는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였다. 경영자는 대개 자산도 많아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까지 합치면, 받는 월급이 전부인 사람과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소득격차가 나곤 했으니 압담한 세상이었다. 건설 일용노동자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며 사람대접조차 못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야 말로 애국자였던 세상이었건만 훈장은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초중등학교에선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며 봉사활동을 점수로 매겨 성적에 올리곤 했다. 준이도 그 시절 봉사활동 점수를 따기 위해 엄마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곤 했다. 한 시간 정도 엄마와 놀다가, 서너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힌 확인서를 받아서 냈다. 엄마도 그것이 다 형식적인 것이라며 용인을 해주었다.

돌이켜보면 그뻘 남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많기도 많았다. 자치단체 의원 부인이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았거나 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장에 다니며 구경을 시켜주면서 자신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혹시 그 부인은 할



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거나 부모가 있어도 없는 것 같던 아이들을 진정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던 건 아닐까? 그녀가 진정 그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놀러와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서러운 자신을 보게 된다. 그들의 슬픔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남을 도울 땐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칫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좋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줘서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 불쌍한 사람을 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행위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선 안 될 것이다. 남을 돕는다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 이번엔 결정을 내리자. 준이는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복지정책에 도움을 준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괜찮은 행동이었다. 이름이 드러날 이유도 없었다. 세금을 낼 여유도 없고 내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내 땅을 가져가라고 하면 그뿐이었다. 다만 복지분야에 쓰도록 해달라는 단서만큼은 달아야 했다. 그 다음의 일은 자치단체나 국가의 담당자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갖고 있기보다는 내놓아서,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한다면 좋은 일 아니겠는가?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한 날이다. 마당에 서서 멀리 앞산을 바라보며 30여년 뒤의 아들 준이의 모습을 그려본다. 사려 깊은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면소재지 통닭집으로 가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얘기가 들어볼까나. †

